

'85년 사료검사 결과를 보고

양축가들은 사료회사에 대해 보다 양심적으로 사료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

모름지기 좋은 품질의 사료는 축산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양축가들은 열이면 열 모두 자기가 사용하는 사료의 품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사료의 품질은 곧바로 양축가들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양축가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사료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원활한 사료의 수급과 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료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료

회사로 하여금 원료 및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과 분석기술을 습득한 인원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조코자 하는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료관리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사료의 품질을 검사케 하여 등록된 성분대로 사료를 제조하지 않거나 유해사료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법조문을 들추지 않더라도 사료회사는 사료의 품질은 곧 양축가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라도 항상 좋은 사료를 제조·공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85년도 사료검사 실적”을 보면, 과연 양축가들은 얼마만큼 사료회사를 믿고 사료를 사 써야 할 지 실로 암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농산부의 발표를 보면, '85년도에 각 시·도에서는 총 6,006건의 배합사료와 1,437건의 단미사료를 샘플 채취하여 검사했는데, 배합사료는 1.2%인 74건, 단미사료는 8.8%인 126건이 등록된 성분대로 사료를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배합사료를 축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양계용은 1,959건중 20건이 위배사료로 판정되어 1%의 위배율을 기록했고, 양돈용은 1,981건중 22건으로 1.2%, 낙농용은 1,119건중 22건으로 2%, 비육우용은 256건중 1건으로 0.4%, 기타 사료가 101건중 6건으로 5.9%를 점하고 있다.

이를 위배 성분별로 분석하여 보면, 조단백질 함량 부족 위배건수가 가장 많은 52건으로 전체의 68%나 차지하고 있고 조회분 초과가 16건으로 20%, 기타가 9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어 사료회사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조단백질 함량을 줄여서 제조한 것을 알 수 있다.

66

**'85년도 사료 검사 실적을 보면,
과연 양축가들은 얼마만큼 사료
회사를 믿고 사료를 사 써야 할
지 암담한 마음 금할 수 없어**

99

한편 단미사료의 위배내역은 조희분 초과가 가장 많은 31건으로 25%, 2종 이상 위배 23건(16%), 조단백질 부족 20건(16%), 토사 검출 16건(13%), 수분 초과 8건(6%), 염분 초과 6건(5%), 기타 20건(16%)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각 시·도는 위배 경중에 따라 162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15건에 대해서는 제조정지 처분을, 18건에 대해서는 기타 행정처분을 내렸다. 각 시·도는 이중 97건에 대해 55, 173, 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축가들은 작년에 사료회사로부터 2.7%나 되는 가짜사료(?)를 구입해 가축에게 먹였다는 얘기가 된다.

위배사료를 제조한 사료회사는 55, 173, 500원의 과징금과 몇 개월간의 제조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양축가들은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았을까?

우리는 양축가들이 이 2.7%라는 수치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손실을 입었는지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85년도의 총 배합사료 생산량 6, 447, 932M/T의 2.7%는 174, 094M/T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축가들이 보이지 않게 입은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아니할 수 없다.

양축가들은 이제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다. 양축가들이 질이 나쁜 사료를 기피한다는 것은 사료회사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농경연에서 조사한 설문 자료를 보면, 양축가의 94.4%가 사료를 선택할 때 사료의 품질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양축가들의 높은 눈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양축가의 64%가 사료별로 증체량 실험 등을 통해 사료의 품질을 비교하고 있다는 농경연의 조사를 통해 양축가들의 사료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해 준다.

한편 설문 조사자중 양돈농가의 17.8%가 배합사료의 함량이 지대의 성분 표시량과 같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농가가 사료 품질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정부의 발표를 보면 모든 사료회사가 사료검사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료회사들은 양축가들을 위해, 또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성심성의껏 사료를 제조·공급하고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료회사중 4대 메이커중의 하나인 P사료회사의 위배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료회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양축가들의 수익제고와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료회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료의 품질 향상에 사운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차제에 정부 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양축가들이 위배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했다라도 그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위배사료 구입농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

D/C을 높은 물량공세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사료회사 하나가 더 아쉬운 때다.*